

열린 창문으로 침입... 학교 안전 빈틈 노렸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 모두 동일하게 일과후 시간에 창문으로 들어와 범행 2차 사건 후에야 용의자 특정... "출입 실태 점검해야"

속보=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본보 17일자 4면)은 학교 안전의 '빈틈'을 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학교가 문을 닫은 시간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내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특히 1차 사건 당시에는 외부인 침입 정황이 인지되지 못한 데다 피해 교실이 자리한 복도 등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2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용의자가 특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초등학교가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 4월 28일이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가 발견되면서,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 액체가 남성의 체

액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같은 학급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전 사건으로 인해 병가 중이던 교사를 대신해 근무하던 시간 강사가 해당 교사의 의자에서 소변을 본 흔적을 지난 달 5일 발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고등학교 학생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학교 측이 두 사건을 인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과 6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학교 창문을 통해 내부로 각각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교실에 간식이 있어 들어갔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피해 교사는 두 차례 모두

자신의 자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명백히 교사 개인을 겨냥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사건 이후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파악한 뒤 지난 5월 7일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이후 총 6대의 CCTV를 1층 교실 주변 복도와 출입구 인근에 추가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개방된 학교 창문을 통해 외부인이 침입했을 거라는 가능성은 추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시교육지원청과 학교 측도 CCTV와 학교 울타리 추가 설치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학교마다 설치돼 있는 무인 경비 시스템은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였지만, 1차 사건 당시에는 경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시간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문을

닫는 야간에 더해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낮 시간에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선 출입문 개폐, 출입증 발급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도내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실 내부를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내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교육 현장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도내 학교의 출입 통제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앞서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신속 수사와 함께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지은·박소정기자

6년 교제 연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어" 됐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위가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초등 경찰에게 연인과 다투게 된 상황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취했을 때의 사능력이 없었거나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공항, 관제권 밖 불법드론 감시 강화

시니어 감시단 32명 늘려 132명으로 운영키로

지난해 시범운영 티맵 음성안내도 상시 시행

제주공항 인근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공항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을 확대하고, 티맵(TMAP) 음성안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제주공항 중심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조종사가 직접 확인한 사례는 18건이다. 관제권 바깥 지역에서도 12건이 적발되면서 감시 범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에일 등 관제권 바깥 지역에서 출몰한 드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은 기존에 공항 관제권 내 심각·경계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감시활동을 오는 24일부터 관제권 밖 항공기 이착륙 경로까지 확대해 불법 드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제주 노영나영 시

니어클럽과 협력해 시니어 감시단 인력을 기존 100명에서 132명으로 32명 증원할 계획이다.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티맵과 연계한 불법 드론 음성안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달간 공항 주요 접근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는데, 티맵 이용자가 제주공항 반경 15km 이내 지역에 진입하면 "이 지역은 제주공항 인근으로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드론 보급 확대로 공항 인근에서의 불법 드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티맵과 연계한 불법 드론 음성안내 서비스가 대국민 인식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연중 상시 시행하기로 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교사·학생 안전대책 마련"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17일 종합대책 마련 의지 피력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행복한 공교육 환경을 되찾기 위해 교육청, 자치경찰, 사법당국과 손잡고 도정 차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최근 제주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앞으로 학내 치안 공백과 교권 침해 문제를 교육청 소관 문제로만 돌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교육청 및



함덕해수욕장 관광객 1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강풍을 맞으며 힘겹게 걸어 나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과 협력해 학교 주변 순찰 강화와 함께 개방형 학교 구조 개선 등 종합 안전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의 온전한 회복과 교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수업 결손 등에 대한 부담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는 한편, 사법

당국에 이번 사건을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단호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최초 청각학박사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정확한 청력검사 전문 보청기 상담

보청기 상담은 청각학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역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적응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백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문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건심리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박사, 청각학 협력, 청각학 전문, 청각학 연구, 청각학 상담, 청각학 검사, 청각학 재활, 청각학 교육, 청각학 상담, 청각학 연구, 청각학 상담, 청각학 검사, 청각학 재활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와이덱스 보청기